



미 대선결과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I. 미 대선결과와 의미	p.3
II. 부시 정부 2기의 정책방향과 파급영향	p.4
III. 기업경영상의 시사점	p.9

포스코경영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정철호 연구위원

< 요약 >

- ❖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과 동시에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추진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시 정부의 기존 대내외 정책기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전망이다.
- ❖ 부시 정부 2기의 정책방향을 예상해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첫째, 테러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한 강경한 외교/안보정책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중동지역 내 반미움직임 강화, 이라크 정정불안 장기화 등으로 유가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 둘째, 대선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시 대통령이 북핵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 ❖ 셋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공세적인 통상정책의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 ❖ 넷째, 감세 및 국방지출 확대 등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제금리의 상승 및 세계경제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다섯째, 미국은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점진적인 달러약세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위안화 및 원화 등 아시아 통화의 절상압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예상됨.

- ❖ 이상과 같은 대외여건의 악화는 특히 수출호조로 내수부진을 간신히 만회해 온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 특히 국가적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려온 철강기업들의 경우, 내년의 경영환경이 매우 불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됨
- ❖ 이는 무엇보다 중국의 성장둔화로 국제철강 가격의 하락이 우려 되는데다, 수출여건 악화로 철강 수요업체들의 철강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 따라서 내년 경영환경 악화에 철저히 대비한 경영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며, 특히 대외여건의 악화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원화강세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리스크 관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I. 미 대선결과와 의미

□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과 동시에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추진력이 한층 강화되었음.

○ 부시 대통령은 선거인단 수 286 명, 득표율 51%를 획득하여 선거인단 수 252 명과 득표율 48%를 획득한 케리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

○ 상원의 3 분의 1 과 하원 전체를 교체하는 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여 양원에서 모두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함.

	총의석 수	공화당	민주당
상원	100	55	44
하원	435	231	200

○ 한편 50 개 주(州)중 11 개 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선출하였는데, 이 역시 공화당이 28:22 의 우위를 지켰음.

□ 이에 따라 미국의 기존 대내외 정책 기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기본방향	주요내용
외교/안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외교적 접근	유사시 선제공격 및 일방주의 불사
북핵문제	6자 회담 통한 다자적 접근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 ’ 으로 핵폐기 북한인권법 제정 통한 압박
통상정책	자유무역 지향	FTA 적극추진 상황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재정정책	경기부양 위한 확대정책	감세 향구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유지
환율정책	달러약세 정책	중국 및 여타 아시아 통화 절상압력

II. 부시 정부 2 기의 정책방향과 파급영향

1. 외교/안보 정책

- 테러 및 핵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시에는 군사적인 선제공격 및 일방주의 외교노선도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대선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일방주의적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향후 외교적 협상 비중을 높여나갈 가능성은 있으나,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 강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임.

- (영향):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고유가 지속 우려

- 미국의 對중동정책이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동지역내 반미 움직임이 강화되고, 이라크 政情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부시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인 전략비축유 확충 지속방침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북핵문제

-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미루어 왔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북핵 문제는 지난 2002 년 10 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2003 년의 이라크 전쟁, 2004 년의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2 년이 경과하도록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음.

-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과정에서 안보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북핵문제가 부각 되는데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집권 2기의 최우선과제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영향):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증대 예상

- 부시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원칙을 고수해 왔음.
-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상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 왔음.
- 따라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상정하고, 경제제제 나아가 군사제제까지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고조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주가하락 및 환율상승 가능성이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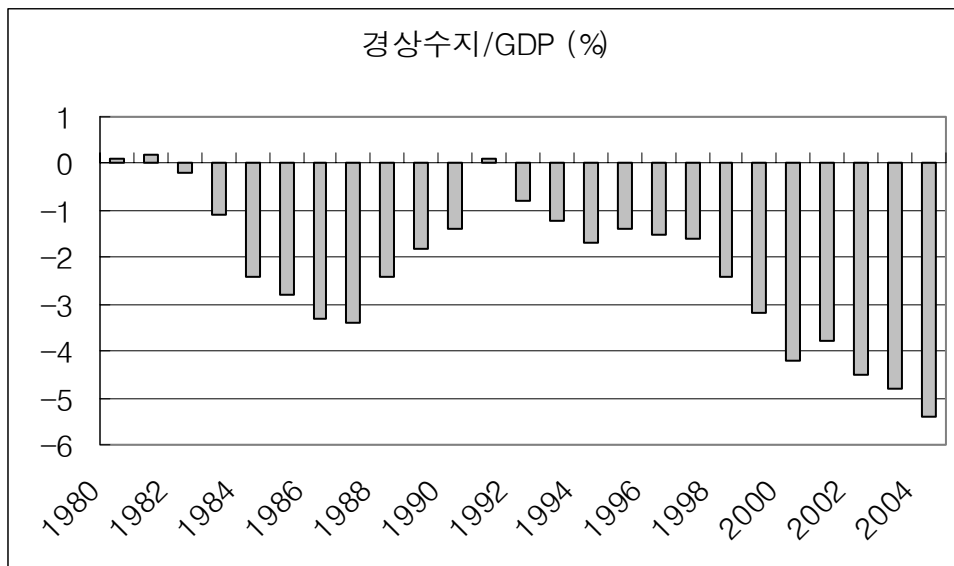
< 남북한과 미국 간 주요 쟁점과 입장 >

	한국 정부 입장	미국 정부 입장	북한 입장
북핵	미북대화 강조	先폐기-後보상	미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한미동맹 재정립	수평관계로 재정립	안보공동선언 추진	남북공조 우선
북한 인권	북한특수성 고려돼야	상당폭 개선돼야	붕괴유도 음모
개성 공단	남북경협차원 추진	북핵해결과 연계	더 신속히 추진
주한미군	원칙적 동의	조속한 기동군화	주한미군 철수

3. 통상정책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공세적 통상정책의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금년에는 6 천억 달러를 상회하여, GDP 의 6%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 이는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약세 유도를 위한 국제공조가 실시되었던 1985 년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1,182 억 달러, GDP 대비 2.8%)에 비해 규모로는 5 배 이상, GDP 대비 비중으로도 2 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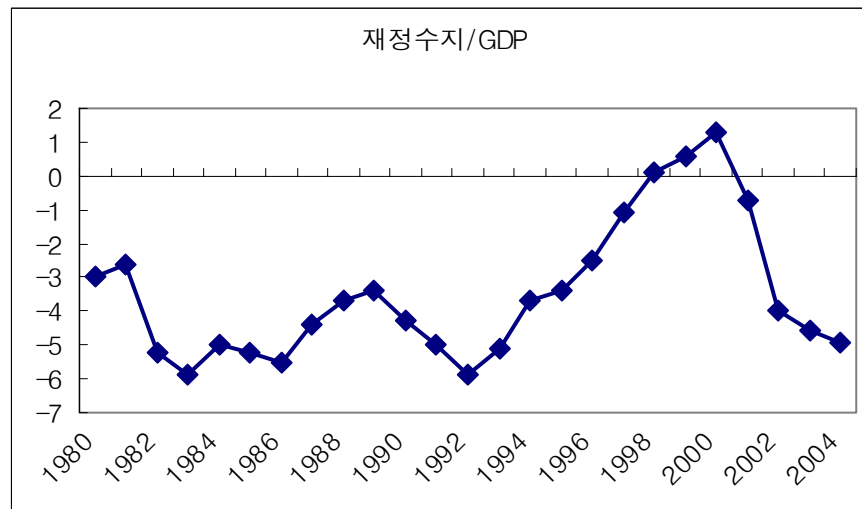
□ (영향): 통상압력 심화로 수출여건 악화

-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큰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상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 주요국의 대미 무역흑자 합계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규모의 50%에 육박하고 있어, 통상압력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4. 재정정책

□ 대선 공약인 감세 영구화 정책,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방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현재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2001 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방지출 확대, 경기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조치 등으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됨.



○ 부시 대통령은 성장을 통한 세입 확대로 2010 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감세 항구화, 이라크 주둔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현실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영향): 단기로는 미국 및 세계성장 견인 효과, 장기로는 금리상승 및 실물경기 둔화로 부정적 영향 우려

○ 미국의 재정책대정책은 미국경기를 부양하고, 미국의 수입수요를 늘림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음.

○ 실제로 미국이 주식버블 붕괴 이후의 경기침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대적인 감세조치와 초저금리 정책에 기인함.

- 그러나 IMF(2004.6)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 늘어나면 미국금리가 23~60bp 상승하고,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 및 투자 위축을 통해 세계 실질생산을 2%p 정도 축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5. 환율정책

□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 수준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달러약세 정책이 불가피함.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 GDP 대비 6%에 육박하여 지속가능한 수준(GDP 대비 2~3%)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0 년에 적자가 1 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미 국제경제연구소)도 제기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될 경우, 달러가치가 급락하고 외국 자본이 급격히 유출됨에 따라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이 야기될 위험성이 커짐.
- 따라서 점진적인 달러약세를 통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서서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영향): 아시아의 유연한 환율변동 축구로 위안화 및 원화 절상 압력 고조

- 2001 년 이래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무려 30% 이상 절하되었으나, 주요 대미흑자국인 아시아국가들의 통화가치 조정은 미약하였음.

- 이는 중국이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자국통화가치의 변동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분석됨.
- 미국은 작년부터 G7 회담 또는 양자회담을 통해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유연한 변동을 촉구해 왔으며,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한 이러한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III. 기업경영상의 시사점

□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함을 감안할 때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내년 경제상황이 매우 불투명할 전망이다.

- 미국의 주요 정책방향에 따른 예상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중동불안 고조 및 고유가 지속
 - 2) 한반도의 위기 고조
 - 3) 통상압력 증대
 - 4) 중기적 국제금리 상승세
 - 5) 원화강세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
- 위와 같은 대외여건 악화는 금년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 IMF는 미 대선결과와 관계 없이 이미 지난 9월의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이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연착륙, 유가의 금년 수준 유지 등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에 바탕을 둔 전망이다.

< IMF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04.9월) >

구분	2002	2003	2004	2005(전년비)	
세계전체	3.0%	3.9%	5.0%	4.3%	0.7%p↓
미국	1.9	3.0	4.3	3.5	0.8%p↓
유로지역	0.8	0.5	2.2	2.2	-
일본	-0.3	2.5	4.4	2.3	2.1%p↓
중국	8.3	9.1	9.0	7.5	1.5%p↓
NIES	5.0	3.0	5.5	4.0	1.5%p↓
ASEAN-4	4.3	5.1	5.5	5.4	0.1%p↓

- 따라서 중동불안으로 유가가 추가 상승하거나, 미국과 중국 양국 중 한 국가가 경착륙할 경우 그리고 북핵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임.

□ 그 동안 국가적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호경기를 누려온 철강기업들의 경우, 내년의 경영환경은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정부가 최근 9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그 동안 철강가격 상승을 주도해 온 중국경제의 내년 성장률의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현재 9%대에서 7%대 성장률로의 연착륙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현재 투자가 GDP의 50%에 육박하고 있어 성장둔화의 영향이 투자 부문에 집중될 것이며, 특히 투자는 철강수요와 직결되어 있어 철강업이 받는 영향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임.
- 또한 중국과 미국의 성장이 동시에 줄어들 경우, 수출호조로 그동안 내수부진을 만회해온 철강 수요업체들의 철강소비가 줄어들 것임.
- 결국 내년에는 철강재 가격하락 및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WSD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국제철강가격이 폭락하는 'Death Spiral'의 가능성이 30%, 덜 심각한 가격하락의 가능성이 40%라고 보는 등, 가격하락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음.

< WSD 의 2005 년 시나리오별 철강가격 전망 >

구분	2005		
	Shortage	“Death Spiral”	Less severe price decline
시나리오			
가능성	30%	30%	40%
HRB 세계수출가격	\$600	\$285	\$400
미국 HRB 가격	\$700	\$330	\$460
EU HRB 가격	\$700	\$330	\$450
중국 HRB 가격	\$650	\$350	\$425

자료 : WSD Karlis M.Kirsis 의 ‘Metal Mania’ (2004.10.21).

□ 내년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대외여건 악화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철강가격 하락, 판매 여건 악화 시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해외투자의 검토에 있어 세계경제, 국제환율, 국제금리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원화강세 및 위안화 절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리스크 관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